

#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종달·일과·구업 염전을 중심으로-

정 광 중\* · 강 만 익\*\*

## 목 차

- I. 서 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동향과 연구방법
- II.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 변천과정
  - 1. 성립기의 염전 2. 발전기의 염전 3. 쇠퇴기의 염전
- III. 염전별 소금생산과정과 생산도구의 지역성
  - 1. 염전별 소금생산 과정과 특징
    - 1) 종달염전의 경우 2) 일과염전의 경우
    - 3) 구업염전의 경우
  - 2. 소금생산 도구의 지역성
- VI. 염전별 소금판매 지역과 방법
- V. 요약 및 결론

## I. 서 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일정지역에서 이미 사라진 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는 과거라는 시간속에서 인간이 창조했던 생활무대의 일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면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염전(‘소금밭’)은 조선시대에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가, 1950년대를 전후하여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문화경관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제주지역의 염전연구를 토대로 염전의 성립과 변화과정을 이해하고 임해지역의 개척과정 및 당시의 토지이용 등을 파악하는 것은 섬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환경조건과 경제활동의 일단면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는 데에도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제주공업고등학교 교사

현재 제주도내의 일부 노년층을 제외하면, 195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도내의 일원에서 소금을 생산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 만큼 제주도내에서의 소금생산의 역사는 잊혀진 과거사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금의 생산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질구조상 호염(湖鹽)이나 암염(岩鹽)과 같은 육염(陸鹽)이 생산되지 않았던 관계로 일찍부터 해수를 이용한 해염(海鹽)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형태는 여러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형태의 하나로서, 해수를 가마솥에 넣어 화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염전에서 일광에 의한 해수의 증발과정을 통해 소금을 얻는 방법이었다.<sup>1)</sup> 부연하자면, 전자는 가마솥에서 해수를 직접[海水直煮法] 또는 염전에서 만들어진 농축된 함수(鹹水)를 가열하여 만드는 전오염(evaporated salt)<sup>2)</sup>으로서, 이 방법은 강렬한 태양열을 연중 얻을 수 없고 풍수해가 발생하는 기후풍토하에서 형성된 것이다.<sup>3)</sup> 후자는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염전에 직접 소금이 침전되도록 하는 천일염(sundried salt)이다.<sup>4)</sup>

전오염의 생산은 반도부의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1908년경 인천지역[朱安]에 처음으로 천일염 염전이 성립되면서 1950년대를 전후하여 중단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오염이 천일염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들었으며, 더욱이 산림보호를 위한 벌목금지정책(1961년 전후)으로 인해 연료확보가 어려워진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소금생산체제의 변화는 금세기에 다시 재현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950년대 이후 천일염과 정제염이 국내의 수요를 충족해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생산에 필요한 인력난이 극심한데다, 공업용 원자재로만 들여오던 국내의 소비시장에 저렴한 식염(食鹽)도 수입될 예정이어서 염전폐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아직도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천일염 생산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농어가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생활필수품으로 중요시되었던 소금이 어떠한 지리적 환경하에서 생산되었고, 어느 정도의 지역적 범위내에서 소비되었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를 가장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비록 현재는 제염활동이 중단된 지역이지만, 제주도의 소금 생산사례를 토대로 염전의 형성과 변천과정, 제염방법 및 제염도구 등의 복원과 기술을 통하여, 염전의 실체와 당시의 지역적 제조건을 구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제주도 염전의 성립시기와 입지조건 및 분포특성을 검토한 후, 둘째, 소금생산에 대한 방법을 통하여 여기에 투영된 지역조건(local conditions)의 특성을 밝히며, 셋째, 제염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도구의 형태와 기능을 복원한다. 넷째로는 소금판매의

1) Sir Dudley Stamp, 1977, 『The World』, 19th edition, Longman. p.61.

2) 煎熬鹽이라는 용어외에도 煮鹽 또는 火鹽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3) 韓仁洙, 1979, “우리 나라 製鹽業의 展開過程 小考”, 『靑坡盧道梁博士古稀紀念論文集』, p.169.

4) 權赫在, 1993, 『韓國地理』, 法文社, pp.269-270.

특성을 지역별 소금장수(鹽商)의 활동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동향과 연구방법

염전 혹은 제염에 관한 연구는 염전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구성요소를 해명하거나 제염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염법 또는 소금의 유통과정을 파악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후자가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연구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오염과 천일염의 제염법, 나아가 소금의 유통과정 등을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전오염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연구로서 김일기는 곰소만을 사례로 소금생산의 입지조건, 제염과정 및 제염도구를 역사지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후,<sup>5)</sup> 이어서 서해안의 남양·인천·서산·부안·영광염전과 동해안의 강릉·삼척·울진염전을 토대로 입지조건과 제염법을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sup>6)</sup> 동·서해안 지역에 대한 소금생산방법과 제조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시점과 관련하여 남해안 지역과 도서지역의 제염상황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재완은 한강유역을 경기만 연안지역, 남한강 유역, 북한강 유역으로 구분하여 조선후기의 소금생산과 유통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sup>7)</sup>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었던 소금의 유통권과 거래량 등을 추정하는데 면밀함을 보이고 있다. 타학문 분야에서는 최성기가 동해안의 영해(寧海) 지방을 사례로, 조선시대 자염(煮鹽)의 자연적 조건과 생산방법 및 생산도구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sup>8)</sup> 김호중도 조선후기의 전오염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연료문제와 어염(魚鹽)의 유통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sup>9)</sup>

한편, 천일염에 대한 연구중에서 정명옥은 경기만의 남동·소래염전을 사례로 염전의 입지 및 제염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경기만 지역의 소금생산구조에 대해 해명하였으며,<sup>10)</sup> 노원기는 전남 진도에서의 천일염의 도입시기 및 제염과정 등을 분석하였다.<sup>11)</sup> 서일석은 경기도 남양만의 간척지 상에 조성된 염전취락의 형태와 구조에 초점을 두면서도 개별 농어가의 염전이용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sup>12)</sup> 염전 농어가의 특성과 염전이용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한인수는 한말이

5) 金日基, 1988, 「곰소灣의 漁業과 漁村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6) \_\_\_\_\_, 1991, 「煎熬鹽 製造法에 관한 研究」, 『문화역사지리』, 제3호, pp.1~18.

7) 金在完, 1992, 「朝鮮後期 鹽의 生産과 流通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제19호, pp.29-47.

8) 崔晟基, 1985, 「朝鮮時代 鹽田式 煮鹽」, 『安東文化』, 제6집, 安東大 安東文化研究所, pp.57-83.

9) 金吳鐘, 1984, 「朝鮮後期 製鹽에 있어서 燃料問題」, 『大邱史學』, 第26輯, pp.147-175.

\_\_\_\_\_ , 1986, 「朝鮮後期 魚鹽의 流通實態」, 『大邱史學』, 第31輯, 大邱史學會, pp.109-138.

10) 鄭明玉, 1986, 「京畿灣의 大日製鹽業-南洞, 蘇萊鹽田을 中心으로-」,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1) 盧元基, 1992, 「珍島의 水産業과 漁村研究」, 高麗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2) 徐日錫, 1986, 「南陽灣 日拓地의 鹽田利用과 聚落構造에 關한 研究」, 東國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후 일제하의 제염실태를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천일염전의 축조상황과 제염방법을 상세히 거론하고 있다.<sup>13)</sup>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특히 반도부의 어업과 촌락의 변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금생산 그 자체가 어업의 성격이나 촌락의 특성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주요 분석대상도 특정염전을 통한 제염과정, 제염도구 및 유통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소금의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내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부로부터 완전히 격절된 도서지역의 경우, 자체적인 소금생산과 공급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이상에서 얻어진 연구성과로부터 도서지역의 성격이 충분히 반영된 소금생산의 지역적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제주도의 염전에 대한 연구는 고광민의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일련의 연구가 있다.<sup>14)</sup> 그는 먼저 도내의 염전중에서도 구엄·시흥·태흥마을을 선정하여 사례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어서 「韓國水産誌(第三輯)」에 기록된 23개 염전 마을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또는 간접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염사실과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과거 도내의 제염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염전의 입지와 분포특성 및 소금판매의 지역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론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보완한다는 견지에서 역사적 증거, 경관적 특성, 지도 및 과거기록 등에 의존하여 지표현상의 변천을 연구하는 역사지리학적 측면에서<sup>15)</sup> 염전의 실태를 분석하며, 특히 지역적인 특성을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제염마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염 생산 염전을 성립기(조선시대), 발전기(일제 강점기), 쇠퇴기(해방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물을 토대로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염전에 대해서는 「耽羅誌」,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風土錄」, 「南槎錄」, 「南宦博物」, 「旌義郡地圖」 등의 지리지와 고지도 및 「緝陰晴史」에 기록된 내용을 기초로 염전의 성립시기와 위치를 분석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염전에 대해서는 「韓國水産誌(第三輯)」와 「濟州島勢要覽」, 「濟州島便覽」, 「生活實態調査(基二)」 등을 토대로 소금생산 마을, 생산면적 및 생산량 등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최근 각 마을에서 제작된 향토지들은 소금의 생산단계에 대한 수정과 함께 생산도구의 형태 및 규격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13) 韓仁洙, 1977, "韓末以後 日帝下の 우리 나라 製鹽業의 實態", 「應用地理」, 제1권 3호, 韓國地理研究所(성신여대), pp.34-53.

14) 고광민, 1994, "생업문화유산", 한국이동통신제주지사, 「제주의 문화유산(제주편 ①)」, pp.131-174.

\_\_\_\_\_, 1997, "제주도 소금밭", 「제주도」 통권101호, 제주도, pp.164-178.

15) W. Norton, 1984,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 Longman, p.39.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은 제염지와 소금 생산량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韓國水産誌(第三輯)」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적 생산량이 많으며 도내에서도 염전의 성격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終達里)와 애월읍 구엄리(舊嚴里) 그리고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日果里)·동일리(東日里)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사진촬영과 함께 1:25,000, 1:5,000 지형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염전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소금생산에 참여하였던 촌로들로부터 제염과정, 판매지역 및 판매형태 등을 청취하였다.

## II.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 변천과정

### 1. 성립기의 염전

염전은 해수를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토지와 해양을 생업기반으로 하는 어촌의 구성요소이다.<sup>16)</sup> 이러한 염전은 강우일수가 적고 사빈이 발달하며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7)</sup>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강우일이 많고 지형적으로 만입부분이 적은데다, 하천으로부터 다량의 모래를 공급받는 전형적인 사질해안이 발달되지 못하여 반도부와는 달리 염전형성이 상당히 불리한 편이다.

「耽羅誌」(1653)에 의하면 “바닷가가 대개 바위로 되어 있고, 염분이 있는 땅이 극히 적으며, 水鐵(무쇠)이 생산되지 않아 가마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금이 귀하다”고 하였다.<sup>18)</sup> 이것은 전오 염 제조에 필수적인 염부(鹽釜)의 재료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암석해안이 많고 간석지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염귀현상(鹽貴現象)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濟州風土錄」(1520)<sup>19)</sup>과 「朝鮮王朝實錄」중 宣朝實錄(1571)<sup>20)</sup>에서도 “海鹽을 얻고자 하나 물이 싱거워서...” 라고 기록되고 있는 사실은 결국 해수의 염분농도가 낮아 소금생산이 힘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유추할 때, 당시 섬안에서 자급할 수 없었던 소금은 본도에서 생산되는 말[馬], 말총[馬尾], 굴 및 해산물 등을 반도부의 소금과 교환하여 사용하였음을 짐작케 한다.<sup>21)</sup> 그리고 자

16) 康萬益, 1993, “島嶼地方의 漁村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p.1.

17) 龜井千步子, 1979, 「鹽の民俗學」, 東京吾繪株式會社, p.76.

18) 李元鑣(1653), 「耽羅誌」, 「耽羅文化叢書(9)」, 199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p.19.

19) 金淨(1520),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1976, 濟州도교육위원회, p.12.

20) 金奉玉(編譯), 1986, 「朝鮮王朝實錄中耽羅誌」, 濟州文化放送, p.353.

21) 宋成大, 1996, 「濟州人의 海民精神-精神文化的 地理的 了解-」, 濟州문화, p.173.

연재해나 흉년이 발생했을 때 관(官)으로부터 상선이나 관선을 이용하여 구황염(救荒鹽)을 보내왔다는 사실도 도내에서 소금생산이 어려웠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그러면, 본도에서는 언제부터 염전이 성립되었는가? 본도의 염전은 해안지역에 촌락이 성립된 후 해안지역이 개척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음의 여러 문헌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성립시기는 16C 이후로 추정된다. 먼저 「新增東國輿誌勝覽」(1531)의 濟州牧 土産條에는 소금이 토산물로 기재되어 있으며,<sup>23)</sup> 「南槎錄」(1602)<sup>24)</sup>에서는 “일찍이 「沖庵錄」(1520)을 보니…, 서해와 같이 出鹽을 얻고자 하여 물을 떠다가 졸여도 소금을 만들지 못하여…, 姜侶牧使는 해변의 노지(鹵地)를 보고 도민들에게 반도부 해안지방의 해염 생산법을 가르쳐 소금을 만들게 하였으며, 부족본은 남해안의 진도(珍島)와 해남(海南) 등지에서 구입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南甯博物」(1702)<sup>25)</sup>에서도 이형상 목사가 반도부에서 들여온 철 4,000여근으로 철부(鐵釜) 3개를 제작하여 제주에 두 가마, 대정에 한 가마를 주어 소금을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대략 16C~18C 사이에 도내에서도 초보적인 단계의 제염이 시작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들 중에서도, 염전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고문헌은 「南槎錄」과 「南甯博物」이다. 「南槎錄」에는 “自別防至旌義 其間有鹽田數處…環海七處有鹽盆…”<sup>26)</sup>이라 하여, 별방(현재의 구좌읍 하도리 일대)에서 정의현까지의 해안에 염전이 존재하였으며, 또한 해안을 따라 염분(鹽盆)<sup>27)</sup>이 일곱군데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이 집필될 당시에는 이미 본도에서도 제염활동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별방과 정의라는 지명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은 염전발생의 장소를 유추하는데 큰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별방과 정의는 현재의 구좌읍, 성산읍, 남원읍 일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본도에서 성립된 최초의 염전지대는 동부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南甯博物」에서도 “旌義有鹽田一處所煮甚些”라 기록하고 있어서,<sup>28)</sup> 정의현에 염전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염전의 성립된 지역은 고문헌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동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더욱 구체적인 마을단위의 지명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고문헌이나 그 이후의 사료에 기초하면, 도내

22) 김봉옥, 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pp.152-153. 金奉玉(編譯), 1986, 전계서, p.93, p.102.

23) 民族文化推進會(編), 1970, 「新增東國輿誌勝覽」, 第38卷, 濟州牧 土産條, p.103.

24) 金尙憲(1602), 「南槎錄」, 金鶴東(譯), 1992, 永嘉文化社, pp.68-69. 여기에 등장하는 姜侶牧使는 조선선조때의 인물로, 재임기간은 1573년 6월부터 1573년 10월까지로 알려지고 있다.

25)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耽羅巡曆圖·南甯博物」, p.121.

26) 金鶴東(譯), 1992, 전계서, p.69.

27) 鹽盆이란 보통 제염장에 있어서 鹽을 전오하는 鹽釜를 칭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염전 및 기타 제염장에 속하는 설비전체, 즉 염제조의 한 단위를 말하기도 한다.

2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전계서, p.121.

최초의 염전은 종달리 해안부근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고지도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즉, 고종 9년경(1872년)에 편찬된 「旌義郡邑誌」내의 〈旌義郡地圖〉를 보면, 오직 종달리 해안부근에만 「鹽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동시기의 〈大靜郡地圖〉에는 「鹽田」이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고종년간(1863~1907)의 「旌義邑古誌」에 삽입된 〈旌義地圖〉에서도 종달리 해안과 보한리(현, 남원읍 태흥리) 포구에 「鹽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기록<sup>29)</sup>들은 종달리 부근에 최초로 염전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본도로의 제염법 전수는 반도부에서 건너온 염한(鹽漢)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sup>30)</sup> 이러한 사실은 만성적으로 소금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이 직접 공염(公鹽) 생산에 참여했던 염한들을 불러들여 제염법을 전수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여러 단편적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금생산과 관련하여 본도에서도 생산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염세(鹽稅)를 징수한 사실이 있었다. 섬지역인 경우는 철부(鐵釜)를 분급하여 제염하게 한 다음 수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 바,<sup>31)</sup> 염세는 염부(鹽釜)의 크기, 염전의 토성, 연료용 쌀감의 수급, 소금판매의 배경이 되는 어장과 장시(場市)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과하였다.<sup>32)</sup> 제주도에서도 염한인 경우 관에서 공급받은 가마솥을 이용하여 제염한 때에는 한달에 소금 두말을, 그리고 본인소유의 가마솥으로 제염한 경우는 한달에 한말의 염세를 납부해야 했다.<sup>33)</sup> 이는 본도에 유배왔던(1897~1901) 金允植의 「續陰晴史」에서 “종달리와 시흥리의 포구에 소금을 만드는 염호(鹽戶)가 있으며, 內藏院의 훈령에 따라 도내의 어장 및 염부를 조사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sup>34)</sup> 한 것에서도 입증된다.

## 2. 발전기의 염전

16C~18C에 성립된 본도의 염전은 한말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에 지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거는 조선시대 말엽에도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던 염전이 일제가 발행한 「韓國水産誌(第三輯)」에는 23개소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정된다.

29) 「旌義郡邑誌」, 〈旌義郡地圖〉, 1872(고종9년), 서울대 규장각 소장.

「大靜郡邑誌」, 〈大靜郡地圖〉, 1872(고종9년), 서울대 규장각 소장.

「旌義邑古誌」, 〈旌義郡(朝鮮)編〉, 高宗朝, 서울대 규장각 소장.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6, 「濟州의 옛 地圖」, 일신음셋, pp.50-61.

30)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전계서, p.121. 염한은 鹽丁, 鹽丁, 鹽戶로 불리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금생산에 직접 참여하여 매년 일정액의 염세를 身役으로 부담하는 身良役賤의 신분이었다.

31) 劉水源, 1979, 「朝鮮初期의 鹽丁」, 「韓國學報」, 第17輯, 一志社, p.49.

32) 金日基, 1991, 전계서, p.3.

33) 李元鏡, 1991, 전계서, p.77. 鹽漢給官釜者 月收二斗 私釜則收一斗.

34) 金允植, 「續陰晴史」卷10(上), 金益洙(역), 1996, 濟州島文化院, p.231.

이처럼 염전이 지역적으로 확산된 배경은 당시의 지리적인 여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본도가 섬이라는 격절성 때문에 고도의 자급적인 생활태도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점은 소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농업생산의 확대 및 인구의 점진적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로는, 해안지역을 관통하는 신작로가 1915년을 전후하여 개설됨에 따라, 주거지의 공간적 확산은 물론 어업기능이 강화된 취락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도내에 산재하는 여러 취락들 중에서도 포구취락에서는 새롭게 개설된 일주도로를 연결점으로 하여, 중산간 지대의 여러 취락들을 판매대상으로 삼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거기에는 포구취락의 어가(漁家)들은 원지역(중산간지대)에까지 어개류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염장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포구취락을 중심으로 제염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잔존하는 여러 지명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서귀포시 하효동의 염포(鹽浦),<sup>35)</sup> 조천읍 신흥리의 염전동(鹽田洞)과 염전보(鹽田堡),<sup>36)</sup> 성산읍 오조리·안덕면 화순리의 소금막<sup>37)</sup> 등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림 1]은 1910년을 전후한 시기의 본도 염전에 대한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미 전술한 것처럼, 「韓國水産志(第三輯)」에 기술된 23개의 염전을 위시하여 기타자료에 기술된 12개의 염전까지 합하면 도내에는 대소 35개의 염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타자료에 기술된 12개의 염전의 경우는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적으로 판매를 전제로 한 생산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술한 23개의 염전만을 대상으로 지역적 분포특성을 분석하기로 하겠다.

총 23개의 염전을 당시의 행정구역별<sup>38)</sup>로 검토해 보면, 제주군(濟州郡, 이하 제주지역이라 함)에 56%인 13개의 염전이 분포되어 있었고, 대정군(大靜郡, 이하 대정지역)과 정의군(旌義郡, 이하 정의지역)에 각각 5개의 염전이 입지하여, 염전분포의 남북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염전분포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염전조성이 가능한 해안지형의 존재여부와 관련된다. 그리고 지역간 배후인구의 크기나<sup>39)</sup> 농어업 활동의 차이에서도 정도의 차는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도의 행정·경제의 중심지였던 제주지역에 대소의 염전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내의 해안지역에 입지한 여러 포구취락에서는 생계활동에 필수적인 소금을 안정적으로 확

35) 제민일보, 1994년 3월 29일자, 濟州의 浦口(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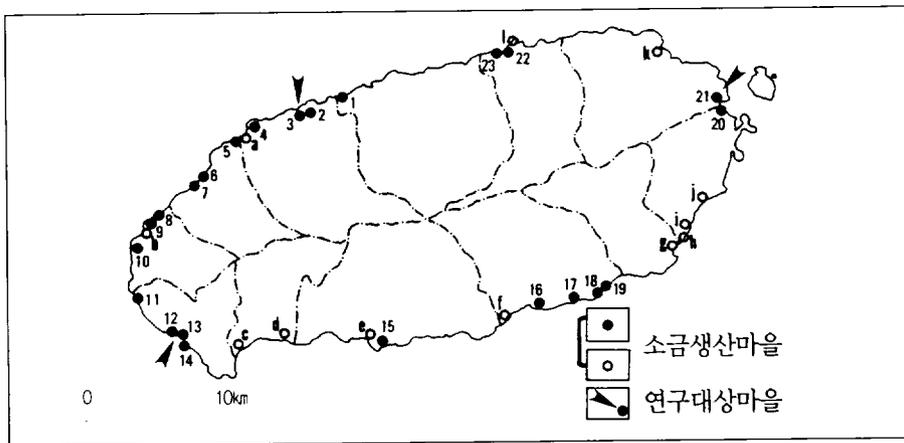
36) 조천읍 신흥리사무소 소장, 「新興里誌」, 上(一), “井泉, 堡”.

37) 오성찬, 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pp.25-78.

38) 제주지역에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의 3郡 12面制가 실시된 것은 1906년으로 1913년에는 추자도를 제주도에 귀속시켜 추자면으로 하였으며, 3 군제의 폐지와 함께 대정군과 정의군을 제주군에 편입시킴으로써, 1군 13면제가 시행되었다(濟州道教育研究院, 1996, 「鄕土教育資料」, pp.333-335).

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할 만한 상황하에 직면해 있었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염전조성이 가능한 포구취락을 중심으로 소규모이긴 하나, 지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염전조성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소금장수(鹽商)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소비하였다.<sup>40)</sup> [그림 2]는 소금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지역별로 살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1910년 경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를 통틀어서 정확한 소금의 생산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염전별로 다소의 증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략 본 그림에서 제시한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당시의 도내 염전에 대한 규모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사려된다.

[그림 1] 일제강점기 제주도내의 염전분포



자 료 : ① 朝鮮總督府農工商部, 1911(明治 44), 『韓國水産誌』(第三輯). ② 남제주군·제주대박물관, 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③ 오성찬, 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④ 고광민, 1997, 『제주도 소금길』, 『제주도』통권 101호, 제주도, pp.164-178. ⑤ 서귀포시 월평동, 1992, 『월평마을』, 나라출판. ⑥ 한국항토사연구협의회, 1996, 『날개오름을 등진 섬마을』, 수서원.  
 염전명 : 1. 외도 2. 하귀 3. 구멍 4. 애월 5. 귀덕 6. 옹포 7. 협재 8. 금등 9. 두모 10. 용수 11. 도원 12. 서일과 13. 동일과 14. 모슬포 15. 감정 16. 동미 17. 서의 18. 서보한 19. 보한 20. 시흥 21. 종말 22. 조천 23. 신촌(이상, 『韓國水産誌』(1911) 기재 마을)  
 a. 금성 b. 신창 c. 사계 d. 화순 e. 월평 f. 하례 g. 하천 h. 신천 i. 신봉 j. 신산 k. 한동 l. 신홍 (이상, 기타자료 기재 마을, 자료 ②~⑥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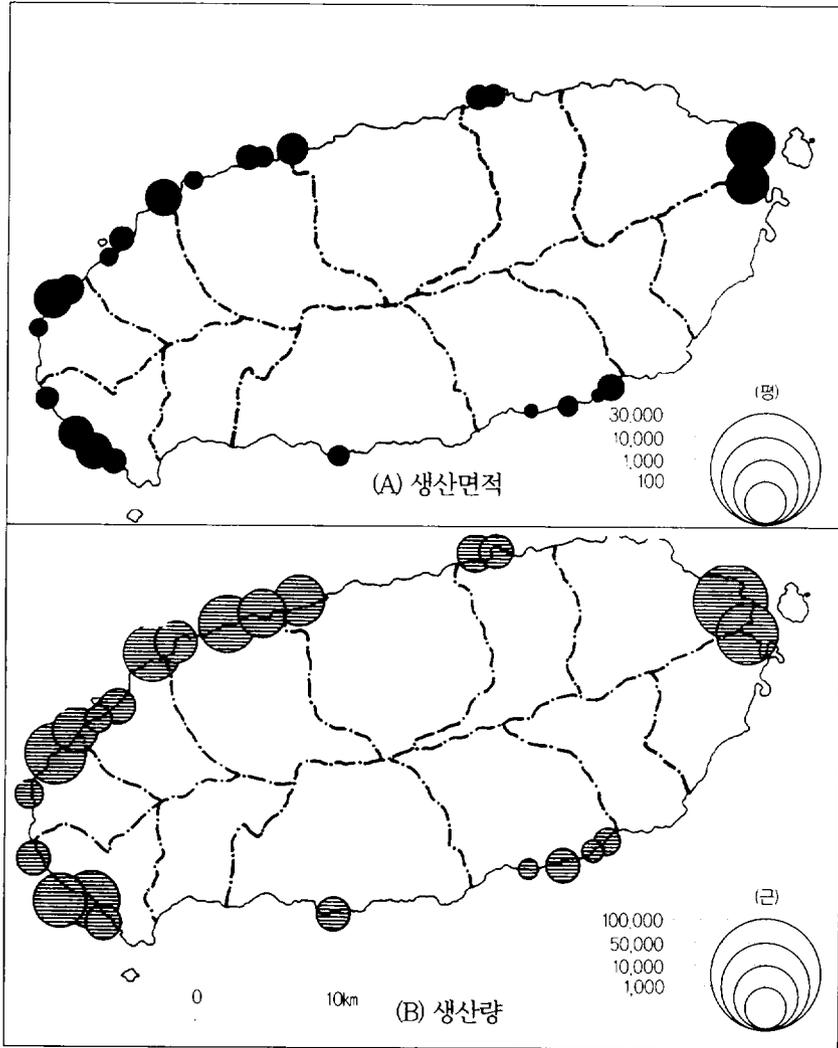
39) 일제 강점기의 지역별 인구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연도	(A)		(B)		(C)		제주도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호구	인구	호구	인구
1911(a)	21,211	105,744	6,215	27,131	7,629	37,961	35,055	170,836
1928(b)	27,144	125,864	6,909	34,526	8,924	46,977	42,977	206,609
1938(c)	31,587	131,115	7,936	32,951	10,157	49,680	49,680	206,651

자료: (a) 大野秋月, 1911(明治44), 『南洋實産 濟州島』, p.52.  
 (b) 朝鮮總督府, 1929(昭和4), 『生活狀態調査(其二)』, pp.101-112.  
 (c) 濟州島廳, 1939(昭和14), 『濟州島勢要覽』, pp.5-6 을 근거로 재편성.  
 (A) 제주군지역(제주읍, 애월면, 한림면, 구좌면, 조천면, 추자면(b, c에 포함)) (B) 대정군지역(대정면, 안덕면, 중문면)  
 (C) 정의군지역(서귀면, 남원면, 표선면, 성산면)

40) 일제시대의 도내에는 반드시 濟州에서 생산한 소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村老들의 말에 의하면, 전라도 지방에서 소금을 들여와 판매하는 상점이 면별로 1-2군데 정도는 있었다고 한다.

[그림 2] 1910년경 제주지역의 염전별 생산면적(A)과 생산량(B)



자료 : 朝鮮總督府農工商部, 1911(明治 44), 『嶺南水産誌』(第三輯), pp.432-434에 의해 작성

[그림 2]에 따르면, 소금생산은 제주지역이 대정지역이나 정의지역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염전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가 많고 관찰범위가 넓으며, 또한 배후의 소비인구가 많았다는 점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당시의 염전면적과 생산량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염전면적을 보면, 제주도의 염전 총면적인 53,059평 중 제주지역이 33,113평으로 62.4%를 차지하며, 대정 및 정의지역은 19,946평으로 37.6%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지역 내에서도 염전면적의 지역차가 나

탄한다. 13개의 염전중 종달(14,357평), 두모(5,560평), 귀덕(4,403평)이 비교적 넓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 대정지역에서는 동일과(4,428평), 그리고 정의지역에서는 시흥(8,178평)이 규모면에서는 가장 큰 염전이었다. 개별염전에서는 종달염전이 14,357평으로 가장 크며 이어서 시흥과 일과염전이 각각 8,178평과 7,846평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종달염전과 시흥염전은 해안에 넓게 발달한 사빈이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역보다도 재염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량에서는 총 354,326근(약 213톤) 중에서 제주지역은 244,847근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며 대정(26,750근) 및 정의지역(40,979근)을 합한 양보다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개별염전에서는 생산 면적에서와 동일하게 제주지역은 종달염전(89,052근)이 최대의 생산량을 보였고, 대정지역에서는 동일과염전(26,750근)이 그리고 정의지역에서는 시흥염전(40,979근)이 최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도내의 여러 염전중에서는 제주지역의 동부에 위치한 종달염전이 생산면적과 생산량에서 최대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도의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어물저장과 염장식품의 제조에 주로 이용되었다. 어물은 고온다습한 기후조건 아래서 쉽게 부패하는 속성상 염장처리가 필수적이므로, 특히 연근해에서 잡히는 어류의 상품화를 위해 다량의 소금이 염건품(鹽乾品)·염장품(鹽藏品)·염신품(鹽辛品)을 제조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많은 양의 소금이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 증대로 인한 도내의 공급부족 현상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결국 부족분은 반도부의 천일염이나 외국의 수입염으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한 사례에서도 쉽게 파악된다. 즉 1910년대를 전후한 본도의 소금 생산량은 약 200톤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인구(1911년, 주39 참고)와 1인당 1일 소금 수요량(12~13g)을 기초로 계산하면, 전체인구의 소금 수요량은 약 786톤이 된다. 이 중 200여톤이 도내 생산량으로 충당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족분은 586톤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제주도내에서 생산된 소금의 양은 전체 필요량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계산이 뒤따른다. 그리고 1936년을 전후하여 본도로 이입된 소금도<sup>41)</sup> 약 2,500톤(4,228,960근)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를 근거로 보더라도 소금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며, 그와 동시에 도내에서 생산된 소금만으로는 전체의 수요량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도내의 소금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내의 대표적인 어항인 서귀포와 성산포에 정제염 공장을 세워<sup>42)</sup> 소금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41) 濟州島廳, 1937(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p.145. 여기에는 서남해안 지역에서 반입된 소금과 수입염이 포함되어 있다.

42) 高積鍾(編), 1930, 「濟州島便覽」, 瀛洲書館, p.40. 정제염은 원래 불순물이 많고 색깔이 탁하며 물에 잘 녹지않는 천일염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금을 용해시킨 후 기술적으로 가공하여 재차 제조한 것으로 보통 가정의 식탁위에 오르는 소금을 말한다.

### 3. 쇠퇴기의 염전

일제 강점기를 걸치며 존속되오던 도내의 염전은 해방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지역변화는 교통과 정책의 변화라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필요성이 합치되는 경우에 발생한다.<sup>43)</sup> 본도에서도 염전이 위치하던 지역에서는 교통의 발달에 따라 반도부의 서남해안에서 생산된 저렴한 천일염과 외국의 수입염이 쉽게 반입되자, 도내에서 생산된 전오염은 가격과 품질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그 결과 생산량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개간정책과 삼림보호를 위한 벌목금지정책의 영향을 받아, 전오염 생산에 필요한 연료확보는 한층 어려워지게 되었다. 아울러 종달염전의 경우는 쌀생산에 대한 주민의 높은 선호와도 맞물리면서 제염활동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마을내와 생활권내의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제염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었는데, 결국 도내의 염전들은 1950년대를 전후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해방이후 천일염 생산을 장려한 결과 1950년대에 이르러 거의 자급자족하는 단계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를 맞이하여 전오염 제조법을 완전히 폐지함과 동시에,<sup>44)</sup> 1942년 이후 전매품으로 지정되었던 소금이 민영화되기에 이르렀다.<sup>45)</sup>

전오염 생산이 국가정책과 경쟁력 약화로 중단됨에 따라 도내 염전이었던 토지공간의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는 해안도로의 건설과 함께 관광시설들이 입지함으로써 지금은 염전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일과염전의 경우 제염활동이 중단된 이후, 염전을 매립하여 버리거나(동일리염전), 모래를 공사용으로 사용하여 버려 외견상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극히 적은 사례이기는 하나, 주거지 또는 농경지로 전용되어 토지이용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성산읍의 시흥염전은 대지(垜地)로, 그리고 구좌읍 종달염전은 논으로 간척되었다. 특히 종달마을의 경우는 1968년부터 정부의 개간사업 장려정책에 힘입어 개답사업을 벌인 결과, 1971년대부터는 과거의 염전터가 문전옥답(門前沃畝)으로 변하여,<sup>46)</sup> 현재는 도내에서도 몇안되는 쌀생산 지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43) 石井英也, 1992(平成4年), 「地域變化とその構造」, 二宮書店, p.5.

44) 斗飛인터내서널, 1997, 「GEO」, 1월호, p.84.

45) 鄭光中, 1995, “日帝時代 專賣制下 人蔘生産의 展開過程”, 「문화역사지리」, 제7호, pp.93-111. 본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구한말부터 이미 수급조절과 가격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천일염은 官營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금이 실질적인 專賣品으로 지정된 것은 1942년 5월부터이며, 전매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은 1961년 12월부터이다.

46) 康大元, 1979, 「舊左面誌」, 韓日文化社, p.118.

### Ⅲ. 염전별 소금생산과정과 생산도구의 지역성

#### 1. 염전별 소금생산과정과 특징

##### 1) 종달염전의 경우

종달염전은 제주도 제염의 효시인 동시에,<sup>47)</sup> 소금생산의 주산지였다. 지형적 특성상 만입부에 넓은 사빈의 발달로 염전조성이 유리하고 또한 근처에는 지미봉, 두산봉 등 으뜸들과 야산이 해안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쉽게 연료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근거리에 본도의 동부지역 어장의 중심지인 성산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산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해준 셈이었다.

『韓國水産誌(第三輯)』에 의하면 “종달리는 이름있는 제염지로 인가 353호 중에서 제염에 종사하는 자가 약 160명에 달하며 가마솥은 46개가 있었다.”<sup>48)</sup> 고 한다. 이 사실에서도 일제 강점기 초에는 이미 제염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종달마을에서의 소금생산을 통한 수입성이 인근지역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제염에 참여하기 위한 인구의 유입현상도 보여졌다.<sup>49)</sup>

종달염전에서의 소금생산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걸쳐 행해졌다. 즉, 염전조성단계, 채합(採合)단계, 전오(煎熬)단계이다. 채합과정은 염전에서 소금의 원료가 되는 함수를 채취하는 단계로서,<sup>50)</sup> 지형이나 조석상태 및 기후조건이 유리해야 하며 최종단계인 전오과정에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급관계가 큰 영향을 주었다.

[표 1] 종달염전의 제염과정

염전조성	채합과정		전오과정	소금완성
① 모래를 모으기	② 해수를 뿌려주며 소금모래 만들기 ③ '서래'로 소금모래 갈아주기 ④ 해수투입 반복하기	⑤ 소금모래를 '모살눌터'에 운반하기 ⑥ 소금모래를 '서술'에 옮기기 ⑦ '서술' 위로 해수를 재투입하며 함수 만들기 ⑧ '물자우리'로 함수의 염도 측정하기	⑨ '가마터'로 함수 운반하기 ⑩ 가마솥에서 함수를 가열하기 ⑪ '중댕이'에서 소금에 남은 수분제거하기	⑫ 창고나 '불치통'에 담아 보관하기

자료 : 현지 조사결과 및 『종달리誌』, 1987, pp.70-71에 의거하여 작성

47) 夫英性, 1986, 『舊左邑誌』, 태화인쇄사, p.161.

48) 朝鮮總督府農工商部, 1911, 전계서, p.437.

49) 제남신문, 1979년 7월 9일자. 제주의 향사(89), 구좌면 종달리편. 실제로 종달리는 40여개의 姓氏로 구성된 混姓聚落으로서, 19C 후반부터 20C 초에 종달리 인근지역으로부터 입촌한 선조의 후손들이 80%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입촌시기를 고려해 볼 때, 제염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촌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구좌읍 종달리, 1987, 전계서, pp.29-47).

50) 重見之雄, 1993(平成5年), 『瀬内鹽田の所有形態』, 大明堂, p.43.

종달염전의 소금생산과정을 [표 1]에서 보면,<sup>51)</sup> 우선 염전은 마을의 동남쪽 해안가의 사빈이 형성된 지구에 조성되었다[그림 3 참조]. 마을내에서는 동별로 사빈의 일정장소를 선택하고 간조시 염전에 모래를 '산태'로 운반한 후 나무삽으로 끌고루 뿌린다. 그리고 나서 '물골'을 따라 들어온 해수를 '물지게'로 운반하여 모래위에 수십차례 투입시킨다. 이 과정은 염분의 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태양열에 의하여 해수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되면 모래에 염분이 부착하게 된다. 염분이 누적된 '소금모래' [鹹砂]는 서로 엉겨붙기 쉬우므로, '서래'를 이용해 염전을 십자(十字)형태로 갈며 모래 덩어리를 풀어준다. 이 작업이 끝나면, 염전에 다시 해수투입을 3일 정도 반복하여 더욱 농도질은 소금모래를 만든 후 보관장소인 '모살눌터'로 운반한다. 이후, 청정일에 소금모래를 염전 한구석에 설치된 '서슬'에다 넣고 해수를 다시 투입하면서 소금모래로부터 함수<sup>52)</sup>를 분리해낸다. 이러한 함수의 염도(鹽度)는 곧바로 소금의 양과 직결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나무 막대기에 송진 덩어리를 붙여 만든 '물자우리'로 함수의 염도를 측정한다. 다음, '곤물통(함수통)'을 이용하여 '가망집[釜屋]'<sup>53)</sup>으로 운반한다. 여기에서 곤물통은 함수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제염의 마지막 단계인 전오작업은 함수를 가망집에 설치한 '가마[鐵釜]'에 부어 넣는 일부터 시작된다. 가마솥에 '모듬물'을 부은 다음 '곤물(함수)'을 3~4회 투입해가며 하루 종일 가열하여 소금을 만든다. 끝으로 소금에 묻은 수분[鹽汁]을 제거하기 위해 '중댕이'<sup>54)</sup> 위에 대나무로 만든 '구덕'을 얹히고 소금을 나무삽으로 떠담는다. 이때 중댕이 안에 수분이 떨어지는 데 이것을 '춘물'이라 하였다. 춘물은 고염분의 물이므로 소금대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sup>55)</sup> 완성된 소금은 대구덕에 담아 습기가 없는 부엌아궁이 뒤의 재[灰]위나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였다. 종달리에서는 물때로 보아 조수가 가장 적게 들어오는 조금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염을 시작하여 여덟물까지 약 7일동안 작업이 진행되었으며,<sup>56)</sup> 한

51) 현지조사, 1997년 7월 27일, 제보자: 강봉희氏(종달리, 여, 82세), 윤인지氏(종달리, 남, 60세), 문수송氏(종달리, 남, 57세), 부무인氏(종달리, 여, 91세).

52) 鹹水에는 '곤물'과 '모듬물'이 있다. 곤물은 서슬에서 첫번째로 녹인 물을 말하며, 모듬물은 두번째로 녹인 고염분의 물을 말한다.

53) 가망집이란 '가마가 놓여있는 집'이란 뜻으로 약 25~30평 정도의 크기이다. 내부시설로서 가매덕, 중댕이, 곤물통, 구덕 등이 항상 놓여 있었다. 가망집은 염전에서 떨어진 한쪽 구석이나 인가내에 마련되었고, 공동으로 이용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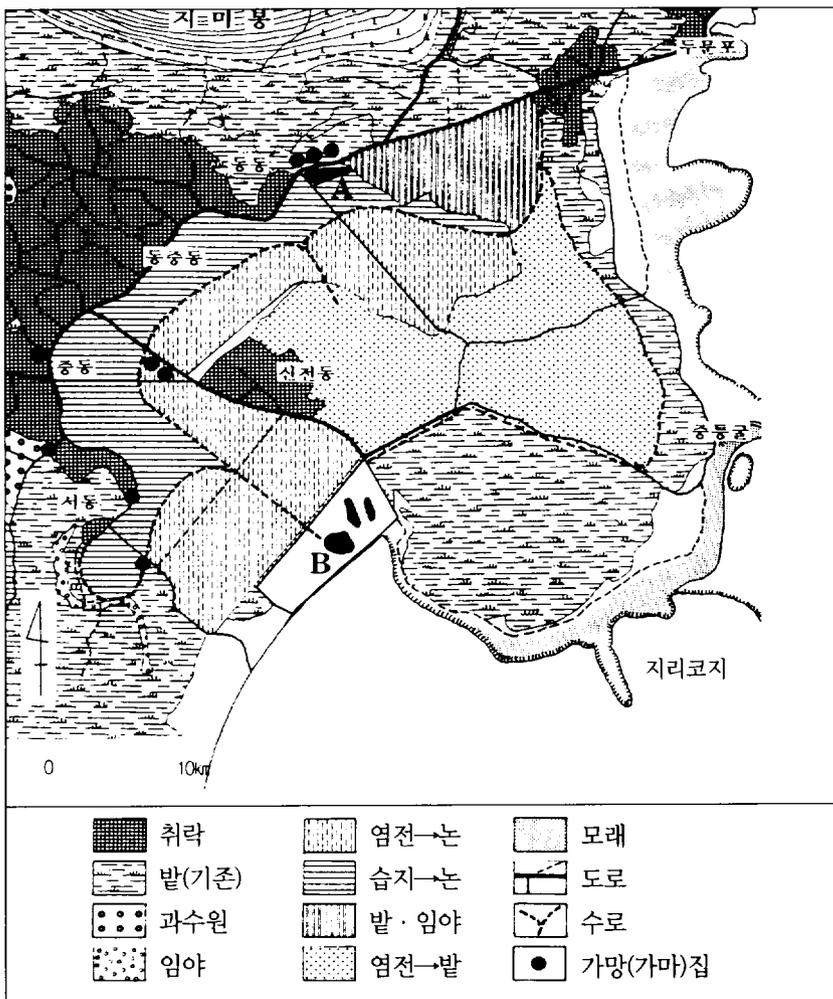
54) 중댕이는 한라산에서 구해 온 가시나무나 참나무를 이용해 속을 파내어 만드는 것으로, 약 300ℓ(中)~400ℓ(大)의 소금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

55) 구전에 의하면, 마을내 新田洞에 거주하는 玄五씨는 마차(구루마)를 이용하여 濟州市에 있던 두부공장과 간장공장에 춘물을 판매했다고 한다.

56) 현지조사, 1997년 4월 5일, 제보자: 문숙자氏(종달리, 여, 62세)

달에 두차례 정도 생산이 행해졌다. 소금의 생산 시기는 겨울과 장마철을 제외한 기간 즉 3~4월과 7~8월 및 9~10월이며, 5~6월과 11~2월에 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제염에 필요한 노동력은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으로 구분하여 투입되었는데 특히 염전조성, 해수운반, 연료채취 및 운반, 전오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가마의 구입이나 사용에 있어서는 10~15명 단위로 접(接)<sup>57)</sup>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sup>58)</sup>

[그림 3] 소금생산 중단 이후 중달마을의 토지이용 변화



자료 : 현지조사 및 1 : 5,000 지형도에 의거하여 작성.

57) 당시 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노동력을 조직화하는 단위를 접(接)이라 하였는데, 원래 접은 '무리' 혹은 '떼'의 의미를 나타낸다.

58) 현지조사, 1997년 7월 27일, 제보자 : 윤인지씨(중달리, 남, 63세)

[그림 3]은 종달마을이 소금생산 중단 이후 토지이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염전이 조성되었던 곳은 크게 4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4구역은 1961년경에 염전에서 논으로, 습지에서 논으로, 염전에서 밭으로, 그리고 습지에서 논으로 조성되었다. A지점과 B지점의 소택지(沼澤地, 현재는 양어장으로 이용)는 염전을 논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토지이용의 변화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당시 염전에서 논과 밭으로 전환된 면적은 32.1ha이며, 이 중 논은 24ha, 밭은 8.1ha이다.<sup>59)</sup> 논은 마을내에서도 신전동(新田洞, '새밭')을 중심으로 타원형을 그리며 마을 안쪽편으로 조성되었고, 밭은 주로 신전동의 동쪽구역(해안가 방향)에 조성되었다. 현지조사에 의하면, 1945-1950년경까지 제염시설인 가망집은 9개소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소금생산의 중단과 함께 완전히 철거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2) 일과염전의 경우

[그림 4]에서와 같이 일과염전은 현재의 일과 1리에 속하는 '장수원늪', '큰늪', '쇠늪' 및 동일리의 '웃모살밭'이라고 불리는 해안가의 모래가 섞인 '빨밭' [鹺地]에 조성되었다.<sup>60)</sup> 따라서 일과염전은 위치상 서일과(日果 1里) 및 동일과(東日里) 염전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매립지로 변한 동일과의 웃모살밭염전은 동일리 주민의 생계터전이었다.

1910년을 전후한 염전면적과 소금 생산량을 보면, 서일과는 3,418평에 20,450근, 동일과는 4,428평에 26,750근으로서, 이를 합산한다면 서부지역의 염전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된다.

일과염전에서의 제염과정은 [표 2]와 같다.<sup>61)</sup> 먼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조근때를 이용하여, '검은 모래'를 긁어 모은다. 여기에 나무로 만든 '좁팍'을 이용하여 해수를 뜨고 산태로 운반해와 모래위에 뿌려준다. 그리고 나서 '당그네(서래)'로 염전을 갈며 염분을 모래에 농축시키는 작업을 계속한다. 모래에 염분이 농축되도록 재차 모래를 뒤엎으며 건조시켜 가면, 고염분의 소금모래가 형성된다. 이어서 나무삽('낭갈레죽')으로 소금모래를 긁어 모은 다음, 산태를 이용하여 보관장소로 운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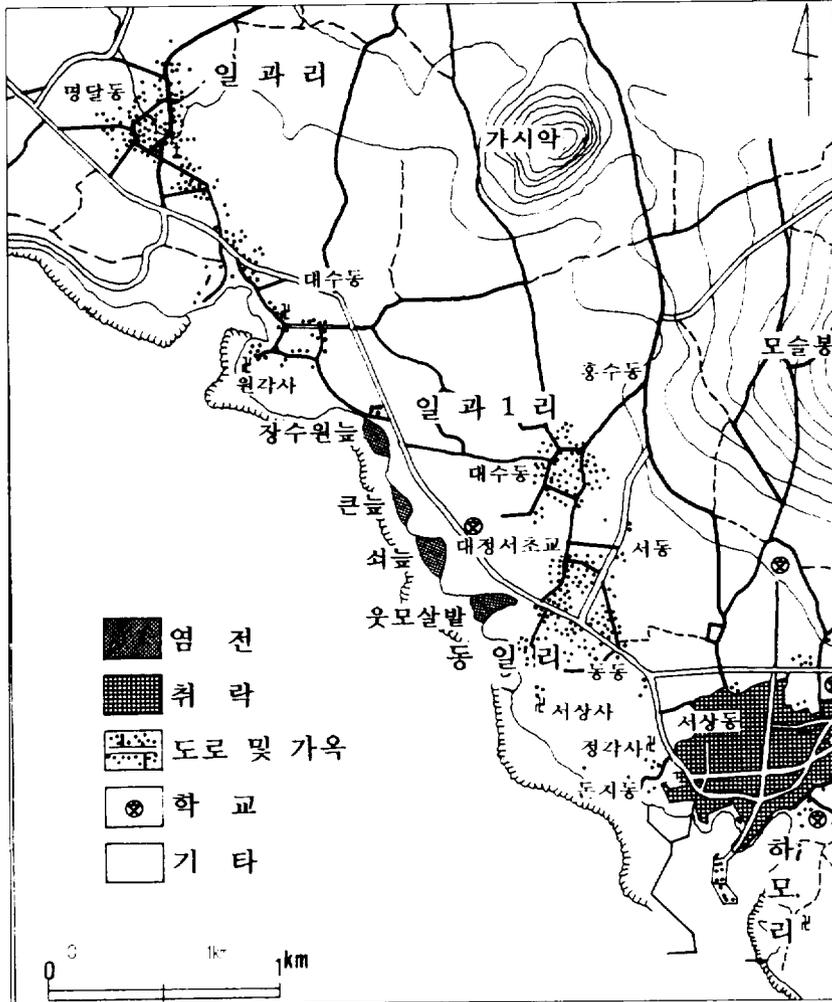
다음으로, 여과장치인 '서슬통'에 소금모래를 넣은 다음 해수를 투입하면 소금모래에 묻어있던 염분은 고농도의 함수가 되어 서슬통에 연결된 통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함수의 농도는 서슬통에 연결된 통속에서 계란이나 게[蟹]를 띄워 확인한다. 농도확인을 마친 함수는 허벅에 담아 집으로 운반하여, 헛

59) 현지조사, 1997년 1월 19일, 제보자: 김봉규氏(里長, 남 56세) 및 제주신문, 1969년, 9월 30일자, '소금밭이 沃土로 變해(終達里 开拓地)'.

60) 大靜邑 日果 一里, 1992, 『日果 一里誌』, pp.140-141, 현지조사, 1997년 8월 11일, 제보자: 임춘봉氏(일과1리 대수동, 여, 70세), 문공진氏(일과1리, 남, 73세), 문창언氏(동일리, 남, 70세)

61) 현지조사, 1997년 2월 23일, 제보자: 김성월氏(일과1리, 여, 88세), 문경옥氏(일과1리, 여, 78세), 이춘수氏(일과1리, 여, 77세), 이유생氏(일과1리, 여, 71세)

[그림 4] 일과마을의 염전터와 주변환경



자료 : 현지조사 및 1:25,000 지형도를 토대로 작성.

간에 마련된 가마에서 가열한 다음 소금을 얻는다. 가마술은 당시 솔제작으로 유명했던 안덕면 덕수리(德修里)의 장인에게 주문하거나 혹은 가마술을 소유한 개인에게 소금을 이용료로 지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마에서 허벅으로 한 말 정도(18℔)의 함수를 가열했을 때, 소금은 약 1말이 생산되었으며, 제염은 한달에 2회 정도 이루어졌다.<sup>62)</sup>

한편, 제염작업은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특히 남성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일과염전에

62) 현지조사, 1997년 8월 11일, 제보자: 강달삼氏(일과리, 남, 76세), 문공진氏(일과리, 남, 73세), 문신화氏(일과리, 여, 81

서도 제염시 필요한 노동력은 주로 가족 노동력이 이용되었으나, 날씨의 영향을 받는 단기적인 작업이라 '수놓음'으로 해결하기도 하였다.

[표 2] 일과염전의 제염과정

염전조성	채합과정	전오과정	소금완성
① 모래 모으기	② '좁팍'에 물을 담아 뿌리기 ③ '서래'로 염전 갈기 ④ 소금모래 만들기 ⑤ '서슬통'에서 함수 분리하기	⑥ 염도측정하기 ⑦ 함수를 '허벅'에 담아 집으로 운반하기 ⑧ 가마솥에서 함수 가열하기	⑨ '불치통'에 올려 놓고 소금에 남은 수분 제거하기

자료 : 현지 조사 및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1996, pp.278-279에 의거하여 작성.

### 3) 구염염전의 경우

구염마을은 예로부터 소금 곧 염(鹽)을 만들며 살아온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염쟁이[嚴藏伊]라 불려졌다.<sup>63)</sup> 종달염전과 일과염전이 해안에 퇴적된 모래를 활용하여 소금을 생산했던 반면에, 구염염전에서는 암석해안의 암반을 활용하여 해수를 직접 증발시키는 제염형태를 취한 것이 특징이었다. 해안에 발달된 약 800여평 정도의 파식대가 바로 염전장소였는데, 이 장소에서는 구한말 이재수(李在守)의 난(1901년) 때에 천주교 신도들이 염전의 '간수통'에 숨어 구명하였다고 하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sup>64)</sup> 구염마을의 경우 모래를 구할 수 없는 해안환경으로 인해 오로지 태양열이라는 천연에너지를 이용하여 함수를 증발시키고 제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돌소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910년경의 제염면적이 887평으로 나타나듯이, 도내 23개의 염전중에서는 중간정도(11위)의 규모라 할 수 있다. 소금 생산량은 28,800근으로 전체 4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좁은 제염공간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소금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조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관제로, 기상조건이 유리하다면 반복해서 제염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염마을에서는 비만오면 밭에 물이 고이는 불리한 토양조건으로 인해 농업이 어려워지자, 마을포구인 '철무지개'에서부터 '옷여' 부근까지 발달된 편편한 파식대[岩盤, '빌레뜨르']를 제염장소로 삼아 소금을 생산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sup>65)</sup>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염장소는 동북-서남방향이 약 500m이고 폭은 50m 내외이다. 그러나 그림에서 나타난 전구역에서 제염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암석의 경연(硬軟)에 의한 차별침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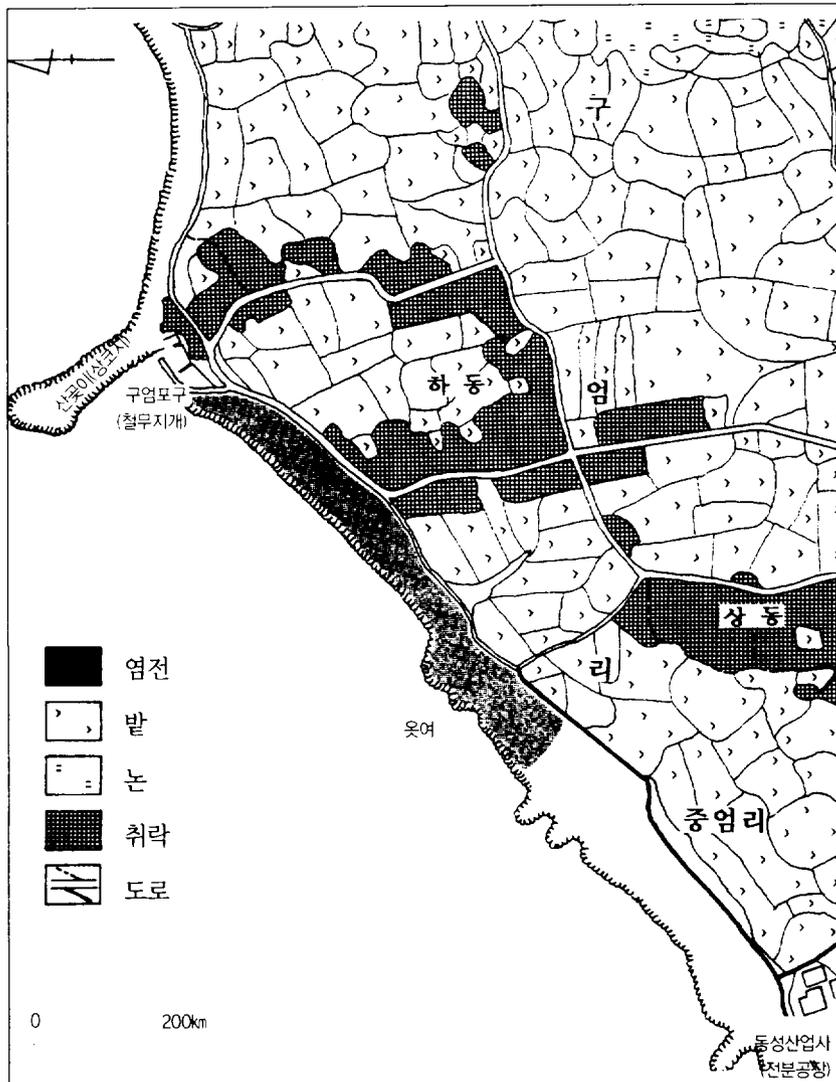
63) 舊嚴國民學校, 1987, 「舊嚴學區鄉土誌」, 삼화상사, p.21.

64) 涯月邑誌編纂推進委員會, 1997, 「邑誌」, 선진인쇄사, p.421.

제주도 염전의 성립과정과 소금생산의 전개

식을 보이고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제염에 부적당한 곳도 존재했다. 소금을 만드는 암반은 공동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서, 이들은 집안 대대로 상속되어져 왔으며 1가구가 소유하는 면적은 대략 20~30평 정도의 규모였다. 개인소유를 나타내는 경계선은 암반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선(線)으로 결정되는데, 이 방법은 경험에 의한 약식구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구엄마을의 염전터와 주변의 토지이용



자료 : 현지조사 및 1 : 5,000 지형도에 의해 작성.

[표 3] 구염염전의 제염과정

염전조성	채합과정	소금완성
① 암반 청소하기	④ 해수를 '호갱이'에 운반하기	⑧ 고농도의 함수를 증발 시키기
② 암반의 틈새막기	⑤ '호갱이'에서 함수 만들기 (3단계의 함수 완성)	⑨ '돌소금' 완성
③ 진흙으로 독 쌓기 ( '호갱이' 완성)	⑥ 함수의 농도 확인하기	
	⑦ 함수를 '혹'에 보관하기	

자료 : 현지 청취조사(1996년 11~12월)에 의거하여 작성.

구염염전은 [표 3]에서 보듯이 염전조성 과정이 극히 단순하면서도 초보적이다. 조성과정에서는 특별히 많은 노동력이나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해수를 가두어 놓기 위한 암반내의 독막기가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이다.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 염전으로 이용할 암반은 먼저 대빗자루로 깨끗하게 쓴 다음, 누수방지를 위해 암반바닥에 나있는 구멍을 진흙(泥土)으로 막는다.

암반바닥의 구멍막기와 함께, 여러번 다져서 만든 진흙으로 암반위에 독(小堤防)을 만든다. 독막기도 암반에 나있는 선을 중심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행해진다. 독막기 작업의 종료는 결국 증발지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 증발지를 현지에서는 '호갱이'라 불려진다. 여러개의 증발지 중에서 1~2개는 제염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되는 '소금돌'이 되는데, 가장 매끈한 암반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독막기에 이용되는 진흙은 구염마을에 인접해 있는 가문동, 반대동 및 하동사이의 논이나 또는 수산봉(水山峰, 121m)으로부터 채취한다. 소금을 생산하려면, 먼저 호갱이안에 해수를 채워야 하므로 우선 바다와 가까운 증발지부터 순서대로 채우게 된다. 이처럼 구염마을의 경우는 제염장소가 해수면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허벅이나 양동이를 이용하여 해수를 퍼올리는 노력이 필요했다.<sup>65)</sup>

소금생산의 원료인 함수는 호갱이에서 3단계의 과정을 걸친다. 첫번째는 모든 증발지에 해수를 떠 넣어 저농도의 함수를 만든다. 두번째는 저농도의 함수를 몇 개의 증발지로 모아 계속적으로 농도를 높혀간다. 이때 6~10개의 증발지의 함수는 4~8개의 분량이 되며, 비어 있는 증발지에는 다시 새로운 해수를 부어 놓는다. 한번 이동된 함수는 점차 농도가 증가되어 중농도의 함수가 된다. 세번째로는 중농도의 함수를 다시 2~4개의 증발지의 양으로 합치고 계속 증발시킨다. 이렇게 3단계를 걸친 함수는 고농도의 상태를 띠게 된다. 그 후, 계란을 띄워 최종적인 농도확인을 하고 좁막과 바케츠(양동이)에 담아 일시적인 함수보관 용기인 '혹'으로 운반한다. 혹은 진흙으로 만든 일종의 용기이며, 외부의 형태는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함수는 일조량이 많은 날에 혹에서 꺼내어 소금돌(매끈한 암반)에 얹히고, 태양열로 증발시킨 후 최종적으로 소금 결정체를 얻는다. 이 단계에서는 고농도의 함수를 소

65) 제민일보, 1992년 9월 29일자, "漢拏山北 으뜸의 소금밭 철무지".

금돌의 크기에 알맞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조건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함수 만들기가 이루어지며, 고농도의 함수가 적당량이 되면 돌소금 완성을 위한 함수의 소금돌 얹히기 작업도 병행된다.

## 2. 소금생산 도구의 지역성

본 절에서는 제염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만을 비교하고 그 특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전오염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제염도구는 크게 채합과정과 전오과정에서 쓰이는 도구로 양분할 수 있다[표 4]. 채합과정에 주로 쓰이는 도구로는 서래, 서슬, 산태, 중덩이를 들 수 있다. 우선 산태는 2인 1조가 되어 모래를 운반하는 도구이며, 150cm 정도의 소나무 2개와 80cm 가량의 가시나무 4개를 사다리 모양으로 엮어 만든다. 서래(당그네)는 염전이나 '소금모래'를 갈아엎을 때 사용하며, 끈이 달려 있어서 사람이 끌도록 되어 있다. 종달염전에서 사용되는 서슬은 사각형 모양의 여과장치로서, 사방을 진흙으로 돌아가며 붙여놓아 함수가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안에는 '새[茅]'를 그물모양으로 엮어서 만든 '서슬받침대'가 놓여 있으며, 함수를 만드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과염전에서는 서슬을 '서슬통'이라 부르며, 가로 세로 1m 높이로 사각형 모양이지만 돌로 쌓아 만든 후 누수방지를 위해 진흙으로 외벽을 바른다. 중덩이는 가시나무나 참나무에 깊이 60cm, 폭 70cm 정도의 크기로 홈을 파서 만든 것으로서, 여기마다 소금을 담은 대구덕을 올려 놓으면 소금에 묻어있는 수분이 흠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표 4] 제염도구의 명칭과 기능

제염도구	사용유무			도구의 기능	제염과정
	A	B	C		
산태	○	○	×	모래를 실어나르는 도구	염전 조성
군대	○	×	×	모래를 긁어 모으는 도구	
물바가지	○	○	○	물을 뿌리는 도구	
낭갈래죽	○	○	×	모래를 뿌리거나 모으는 나무삽	채합 과정
물지게	○	×	×	나무통에 해수를 넣어 운반하는 도구	
서래	○	○	×	염전이나 '소금모래'를 갈아엎는 도구	
서슬	○	○	×	모래에 묻은 염분을 녹이는 여과장치	
물자오리	○	×	×	송진 덩어리로 만든 염도측정 도구	
혹	×	×	○	함수를 보관하는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좁과	○	○	○	해수나 함수를 뜨는데 이용하는 목재도구	
대빗자루	×	×	○	염전바닥인 암반을 청소하는 도구	
허벅	○	○	○	물을 담아 운반하는 항아리(물동이)	
노람지	○	○	○	새(띠)로 엮어만든 도구	
쇠삽	○	○	×	구워진 소금을 뜨는 삽	

대구덕	○	×	×	구워진 소금을 담은 대나무로 만든 도구	전오 과정
중맹이	○	×	×	가마의 소금에 묻은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	
쇠글갱이	○	○	×	가마솥에 붙어있는 소금을 긁어내는 도구	
가마	○	○	×	소금을 굽는 솥	

주: 일부의 제염도구들은 본래 염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목적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많다. A: 종달염전 B: 일과염전 C: 구업염전. 종달염전과 일과염전은 제염법이 동일하나 제염도구의 명칭과 사용유무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료: 현지조사결과, 『종달리지』(1987, pp.71-76) 및 『일과·리지』(1992, pp.142-148)에 의거하여 작성.

전오과정에 쓰이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가마를 들 수 있다(그림 6). 종달염전에서 이용되었던 가마는 사각형 형태로서 길이 250cm, 폭 150cm, 높이 15cm 정도의 크기였으며, 돌을 쌓아 만든 '가마덕'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가마는 무쇠로 제작된 것으로 강력한 화력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에, 염가(鹽家)들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다.<sup>67)</sup> 본도에서 사용된 가마는 토부(土釜)가 아닌 철부(鐵釜)였다. 즉 연료공급의 정도는 생산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도 작용하였는데,<sup>68)</sup> 연료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연료가 적게드는 토부를 사용하였고,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철부를 사용하였다. 본도에서는 연료가 풍부해서라기 보다, 일기변화가 심한 기후환경을 고려하여 단시간내에 강한 화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빠르고 내열성이 강한 철부가 본도의 소금 생산자들에게는 한층 유리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sup>69)</sup>

사레지역의 세 염전에서 사용된 소금생산 도구들의 명칭과 기능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래를 이용하여 제염했던 종달 및 일과염전에서는 제염도구의 유사성이 높으나, 파식대위에서 돌소금을 생산했던 구업염전의 경우는 주요 제염도구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도 낮게 나타난다. 규모에서 가장 컸던 종달염전의 경우는 제염도구에 있어서도 세분되어 있는 동시에 다양하다. 한편, 제주도의 염전에서 해수를 운반하기 위하여 좁박이나 허벅 및 양동이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역성을 잘 대변해 주는 동시에, 반도부에 비하여 그만큼 제염규모가 작았음을 시사해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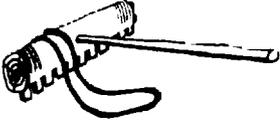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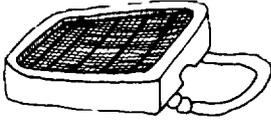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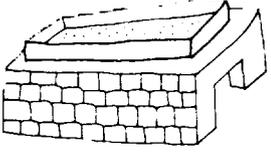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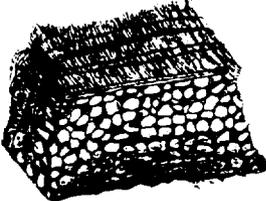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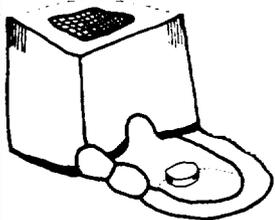
나아가, 제염과정에 이용된 도구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나 목재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며, 해안지형의 차이와 생산방식에 따라 도구의 종류나 규모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구업염전의 경우에는 암반위에서 함수를 태양열로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으므로 '가마', '군대' 및 '서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이 소금생산 도구들은 비교적 제작방법이 간단하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후 다목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제염도구의 형태, 재료 및 크기는 [그림 6]에 정리하였다.

66) 현지조사, 1997년 8월 10일. 제보자: 김신희氏(구업리, 여, 81세), 김인화氏(구업리, 여, 73세).

67) 월간관광제주사, 1988, 『觀光濟州』, 8월호, 태화인쇄사, p.86.

68) 金晷鐘, 1981, 전계서, pp.153-155.

[그림 6] 주요 제염도구의 형태, 재료 및 크기

형태			
명칭	서 래	서 슬	가마 및 가마덕
크기	길이: 80cm 발높이: 10~15cm 자루길이: 200cm	가로: 200cm 세로: 150cm 높이: 50~60cm	[가마] 길이: 250cm, 폭: 150cm, 높이: 15cm [가마덕] 높이: 200cm, 길이: 300cm
재료	가시나무	새[茅], 진흙	무쇠, 석재
이용	종달·일과염전	종달염전	종달염전
형태			
명칭	중 덩 이	혹(항아리)	서 슬 통
크기	길이: 200cm 폭: 70cm 깊이: 60cm	가로: 150~200cm 세로: 130~140cm 높이: 80~100cm	가로: 100cm 세로: 80cm 높이: 130cm
재료	가시나무, 참나무	진흙, 석재, 새[茅]	석재, 목재, 새[茅]
이용	종달염전	구염염전	일과염전

자료 현지조사결과, 「종달리지」(1987, pp.71-76) 및 「일과 1리지」(1992, pp.142-148)에 근거하여 대표적인 도구만으로 재구성하였음.

#### IV. 염전별 소금판매 지역과 방법

일제 강점기 동안에 도내의 상업활동은 주로 물물교환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sup>70)</sup> 당시 주로 거래된 물품으로는 양태, 망건, 옹기, 소금 등이었다.<sup>71)</sup> 이중 특히 소금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한 생계수단인 동시에, 식량과 교환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생필품중의 하나로서,<sup>72)</sup> 지역간 또는 지역내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품목이었다.

소금은 생산자에 의한 자체소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농산물보다도 한층 교환경제적인 성격을 띠며 일정한 소비단계를 넘어서면 활발한 유통이 기대될 수 있는 품목이다.<sup>73)</sup> 본도의 염전에서 생산된 판매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소금의 결정체에 있었으나, 이와 함께 고농도의 함수가 판매되기도 하였다.<sup>74)</sup> 즉, 종달염전에서처럼 '모듬물'이나 '춘물'이 두부공장이나 간장공장으로 팔리기도 했으며, 구염염전에서는 소금물을 중산간 지역에서 팔려 온 나무장작과 교환하는 사례도 있었다.

판매주체인 소금장수들은 직접 소금생산에 참여했던 생산자들이었으며, 생산지에 거주하면서 인근 지역이나 원격지(중산간 지대) 농어촌에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소금의 판매는 세 지역의 염전 모두가 중간상인의 개입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소금 줄래기"(일과염전), "소금바치"(종달염전), "엄쟁이"(구염염전)라 불렸던 판매자들은 식염(食鹽) 뿐만 아니라 양치용(養齒用) 소금도 공급하였다.

판매활동은 "종달리의 큰 애기덜 소금장시 제격이어"<sup>75)</sup> 라는 민요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부녀자들이 담당하였으나, 원거리 지역의 판매인 경우에는 남성들의 도움도 필요하였다. 소금의 판매는 생산지인 해안지역에서 소비지인 중산간 지역으로, 그리고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 해안지역으로 판매되었다[표 5]. 결국 이 지역들은 대부분 해발 200m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중산간 지역은 소금이 몹시 귀한 관계로 사찰스님들의 경우 걸염(乞鹽)을 위해 설마(雪馬)를 타고<sup>76)</sup> 해안지역으로 돌아다녔을 정도여서, 판매활동에는 유리한 곳이었다. 중산간 지역의 판매에는 생산지와의 거리가 먼 관계로, 일출전에 '멕사리'에 소금을 담고 사람의 등짐이나 소를 이용하여 출발하였다.

69) 高承濟, 1956, "李朝鹽業의 經濟構造", 「서울대人文社會科學論文集」, 제4집, p.372.

70) 高在奐, 1993, 「濟州島俗談研究」, 集文堂, p.195.

71) 金奉鉉, 1960, 「濟州島歷史誌」, 橋文社, pp.372-374. 판매품목을 지역별로 보면, [태왁]은 김녕·동북리, [망건]은 조천, [양태]는 신촌, [당진]은 별도(화북), [소금]은 종달, [옹기]는 신평, [숯]은 덕수리에서 판매되었다.

72) 국립민속박물관, 1996, 「어촌민속지」, 태웅그래픽, p.60.

73) 金在完, 1992, 전제서, p.29.

74) 소금의 판매방법과 주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없으므로 여기서는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리하였다.

75) 金榮敦, 1984,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p.197.

76) 林檉(1578년경), 「南溟小異」, 朴用厚(譯), 1989, 濟州文化, p.51.

판매방법은 촌락을 순회하며 호별방문하거나 특정 마을내의 중심부(세거리, 또는 네거리)에서 행인들과 접촉하는 방식이었으며, 일부는 오일장 등을 통한 판매에도 열성적이었다. 종달염전의 경우는 타 염전과는 다른 판매방법도 발견된다. 즉, 소금 판매자들은 두문포에서 풍선(風船)에 소금을 싣고 30km 이상 떨어진 남원, 서귀포, 강정 및 모슬포 포구까지 운반한 다음, “소금 배가 도착했다”고 알림으로써, 포구내의 어선이나 농어민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이었다. 판매대금의 지불은 화폐보다는 어촌에서 구하기 어려운 곡물과의 물물교환에 있었다. 판매활동에 나설 때는 곡물을 담기 위한 대구덕과 포대(麻袋)를 지참했으며, 또한 곡물과의 교환시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로 ‘뒷박(되)’을 준비하였다. 소금과의 교환대상 물품은 보리, 조, 메밀, 콩, 벼[水稻], 산디[陸稻] 등이었으며, 교환비율은 1 : 1 또는 소금 2 : 곡식 3과 같이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르게 거래되었다.

[표 5] 염전별 소금판매 취락과 판매유형

염전	판매 대상 취락	지역구분		판매유형		운송방법	
		해안	중산간	당일	숙식	육로	해로
종달	김녕, 성산, 온평, 신산	●		▲		◆	◇
	수산, 송당, 성읍		○	▲		◆	
	서귀포, 강정, 모슬포	●			△		◇
일과	영락, 무릉, 신도, 고산	●		▲		◆	
	신평, 서광, 동광, 금악, 조수		○	▲	△	◆	
	중문, 도순, 강정, 법환, 남원	●		▲	△	◆	◇
구엄	수산, 예원, 고성, 광령		○	▲		◆	
	용흥, 장전, 소길, 상가, 남읍		○	▲		◆	

주: 해안과 중산간의 구분은 과거로부터 마을사람들의 인식에 따른 것임.  
 자료: 현지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작성

판매유형은 [표 5]에서 확인되듯이, 생산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당일판매와 숙식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배후지와 교통조건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나, 대체로 1일 왕복이 가능한 반경 12~13km<sup>77)</sup>내의 근거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등짐이거나 소를 이용한 당일판매였다.

특히 구엄염전의 경우는 판매대상 취락이 대부분 반경 10~15km 정도에 위치하여 있어서 당일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일과염전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고산, 신도, 무릉 그리고 조수, 신평, 금악 등지가 주된 판매대상 취락이었는데, 당일판매와 숙식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졌었다. 종달염전에서도 반경 10~15km내의 성읍, 성산, 온평 그리고 수산, 송당, 김녕 등지에서 당일판매를 위주로 삼고 있었다.

77) 中村周作, 1985, “水産物行商人の空間行動様式: 山部谷地方の事例を中心として”, 『人文地理』, 第37卷 第4號, p.311.

종달에서는 반경 15km 이상의 장거리인 경우 일출전에 우마차나 풍선을 이용하여 소금을 운반하였고, 경우에 따라 판매자들의 숙식지는 연자방아간일 때도 있었다. 일과염전에서는 제염이 행해지지 않는 마을 중 비교적 인구가 많거나 혹은 소금과 교환할 곡물이 많이 생산되었던 중문, 강정, 법환 등지를 주된 판매지역으로 삼고 있었다.

한편, 장거리의 경우 소금의 특성상 해로보다는 육로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일단 소금을 우마차로 판매 목적지의 마을까지 운반하고, 우마차를 마을입구에 세워놓은 후에 판매 활동에 들어갔다. 목적지의 마을에서 소금을 모두 팔지 못할 경우에는 재차 귀가길에 판매를 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마을사람들이 소금장수에게 방을 빌려주는 것을 기피하는 관계로 노숙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따라서 식수도 미리 특정민가에 소금을 주어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권에서도 가장 컸던 종달염전은 초기에는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여 도내전역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여러 지역에 소규모 염전이 형성된 이후는 주로 인접한 동남부 지역으로 상권이 축소된 것으로 사려되며, 일과염전과 구염염전은 한정된 생산량과 거리적 요인이 서로 결부되어 염전조성 때부터 비교적 좁게 상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염전발달이 미약했던 남부지역은 종달 및 일과염전에 의한 상권이 경합되는 지역이어서, 가격과 품질경쟁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과거에 소멸된 지역경관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평가함으로써, 당시 제주지역의 성격과 제주민들의 생활경제의 일단면을 해석해 보려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따라서 과거 제주도 어촌의 일부경관이었던 주요염전을 대상으로 그 성립과정과 변화, 소금의 생산형태 및 생산도구, 소금의 판매지역과 방법 등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전제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주도의 염전은 16C~18C에 걸쳐 성립된 이후 초보적인 단계를 유지해 오다 일제 강점기를 맞아 소금수요의 증가라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자, 제염업은 본격적인 생산체제의 정비와 함께 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반도부로부터 대량의 천일염이 유입되었고, 이어서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전오염 제조가 폐지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도내의 제염업은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제주도의 염전에서는 크게 전오염, 돌소금, 물소금이라는 세형태로 생산되었는데, 특히 해안의 포구 취락을 중심으로 지역적인 특성과 배후의 소비인구가 고려되어 적정크기의 염전들이 성립되었다. 제염활동은 주로 농·어민들의 겸업으로 행해졌으며,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때는 비교적 호황기를

누리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암석해안이 많은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규모의 염전조성이 어려웠던 동시에, 나아가 소비시장도 작아 소규모의 염전에 의한 영세 경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었던 소금은 전오염과 천일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전오염의 생산을 종달염전과 일과염전으로 대표할 수 있다면, 천일염(일명, 돌소금)의 생산은 구염염전으로 대표할 수 있다. 특히, 구염염전은 천일염을 생산하면서도 반도부의 염전에서 인식되는 사질해안이나 간석지의 특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과식대의 암반위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에서 크게 주목된다.

전오염을 생산하는 염전에서는 염전조성의 단계, 채합단계 및 전오단계를 걸치지만, 돌소금을 생산했던 구염염전에서는 천일염의 형태로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채취를 위한 노동력과 가마솥에서 소금 결정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필요없었다. 제염기간은 장마철과 겨울철을 제외한 약 8개월이었다.

소금생산에 이용된 중요한 도구로서는 나무삽(낭갈레죽), 서래(당그네), 서술(이상, 채합도구), 쇠삽, 종뎡이, 가마(이상, 전오도구) 등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구염염전의 경우는 함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혹'이라는 인공 항아리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종달 및 일과염전과는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으로 소금의 생산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금의 판매과정을 보면, 근거리의 경우에는 당일판매로서 등짐이나 가축(암소)을 이용하였고 주로 부녀자층이 판매를 담당하였다. 또한 해로보다는 주로 육로로 이용하여 소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였다. 장거리 숙식판매일 경우에는 남성도 동행하였는데, 이 때에는 마차나 풍선을 이용하였고 도내의 각지역을 순회하면서 물물교환 형식으로 판매하였다. 소금판매의 대상은 전체적으로 해발 200m 이내의 취락들이었으며, 특히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는 취락들의 경우는 소금판매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곳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현시점에서 볼 때, 제주도내에는 역사시대의 문화경관 중에서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들이 많다. 이들은 제주도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창출되어, 생활공간속에서 나름대로의 큰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필자들은 본 연구를 진행해 가는 동안, 과거의 문화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측면의 조명과 해석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현재의 시점 뿐만 아니라, 과거 시점에서의 지역적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부각될 때, 제주지역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지고 지역연구의 필요성도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할 때, 향후 과거의 문화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염전의 지역적 확산과정을 구명함과 동시에, 제주도의 제염법을 반도부의 그것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康大元, 1979, 「舊左面誌」, 韓日文化社.
- 고광민, 1994, 「생업문화유산」, 「제주의 문화유산」, 한국이동통신제주지사.
- \_\_\_\_\_, 1997, 「제주도 소금밭」, 「제주도」 통권101호, 제주도.
- 高承濟, 1956, 「李朝鹽業의 經濟構造」, 「서울대人文社會科學論集」, 제4집.
- 高在免, 1993, 「濟州島俗談研究」, 集文堂.
- 高積鍾(編), 1930, 「濟州島便覽」, 瀛洲書館.
- 舊巖國民學校, 1987, 「舊巖學區鄉土誌」.
- 구좌읍 종달리, 1987, 「地尾의 脈(종달리지)」.
- 국립민속박물관, 1996, 「어촌민속지」, 태웅그래픽.
- 權赫在, 1993, 「韓國地理」, 法文社.
- 金奉玉(編譯), 1986, 「朝鮮王朝實錄中耽羅錄」, 濟州文化放送.
- \_\_\_\_\_, 1987, 「제주통사」, 제주문화.
- 金奉鉉, 1960, 「濟州島歷史誌」, 橋文社.
- 金榮敦, 1984,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 金淨(1520), 「濟州風土錄」, 「耽羅文獻集」, 1976, 제주도교육위원회.
- 金尙憲(1602), 「南槎錄」, 金禧東(譯), 1992, 永嘉文化社.
- 金允植, 「續陰晴史」卷10(上), 金益洙(역), 1996, 濟州島文化院.
- 金日基, 1988, 「금소灣의 漁業과 漁村研究」, 서울대학교 大學院 博士論文.
- \_\_\_\_\_, 1991, 「煎熬鹽 製造法에 관한 研究」, 「문화역사지리」, 제3호.
- 金在完, 1992, 「朝鮮後期 鹽의 生産과 流通에 관한 研究」, 「地理學論叢」, 제19호.
- 金吳鐘, 1984, 「朝鮮後期 製鹽에 있어서 燃料問題」, 「大邱史學」, 第26輯.
- \_\_\_\_\_, 1989, 「朝鮮後期 魚鹽의 流通實態」, 「大邱史學」, 第31輯.
- 盧元基, 1992, 「珍島의 水産業과 漁村研究」, 高麗大 教育 大學院 碩士論文.
- 大靜邑 日果一里, 1992, 「日果一里誌」.
- 民族文化推進會(編), 1970, 「新增東國輿誌勝覽」第38卷, 濟州牧 土產條.
- 夫英性, 1986, 「舊左邑誌」, 태화인쇄사.
- 宋成大, 1996, 「濟州人의 海民精神-精神文化의 地理的 了解-」, 제주문화.
- 오성찬, 1992, 「제주토속지명사전」, 민음사.
- 涯月邑誌編纂推進委員會, 1997, 「邑誌」, 선진인쇄사.

- 劉承源, 1979, “朝鮮初期의 鹽干”, 『韓國學報』, 第17輯, 一志社.
- 李元鎮(1653), 『耽羅誌』, 『耽羅文化叢書(9)』, 1991, 耽羅文化研究所.
- 林梯(1578년경), 『南溟小異』, 朴用厚(譯), 1989, 濟州文化.
-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6, 『濟州의 옛 地圖』, 일신옵셋.
- 제주대학교 · 남제주군, 1996, 『南濟州郡의 文化遺蹟』.
- 제주도교육청, 1995, 『제주도의 전통문화』, 대영인쇄사.
- 崔晟基, 1985, “朝鮮時代 鹽田式 煮鹽”, 『安東文化』, 제6집.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耽羅巡曆圖 · 南嶽博物』.
- 韓仁洙, 1977, “韓末以後 日帝下의 우리 나라 製鹽業의 實態”, 『應用地理』, 제1권 3호, 韓國地理  
연구소(성신여대).
- \_\_\_\_\_, 1979, “우리 나라 製鹽業의 展開過程 小考”, 『靑坡盧道梁博士古稀 紀念論文集』.
- 『旌義郡邑誌』, 〈旌義郡地圖〉, 1872(고종9년), 서울대 규장각 소장.
- 『大靜郡邑誌』, 〈大靜郡地圖〉, 1872(고종9년), 서울대 규장각 소장.
- 『旌義邑古誌』, 〈旌義郡(朝鮮)編〉, 高宗朝, 서울대 규장각 소장.
- 大野秋月, 1911(明治44), 『南鮮寶齋 濟州島』.
- 朝鮮總督府, 1929(昭和4), 『生活狀態調査(其二)』.
- 朝鮮總督府農工商部, 1911(明治 44), 『韓國水産誌』(第三輯).
- 濟州島廳, 1939(昭和14), 『濟州島勢要覽』.
- 濟州島廳, 1937(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 龜井千步子, 1979, 『鹽の民俗學』, 東京書籍株式會社.
- 重見之雄, 1993, 『瀬戸内鹽田の所有形態』, 大明堂.
- 石井英也, 1992(平成4年), 『地域變化とその構造』, 二宮書店.
- 中村周作, 1985, “水産物行商人の空間行動様式”, 『人文地理』, 第37卷, 第4號.
- Sir Dudley Stamp, 1977, 『The World』, 19th(ed), Longman.
- William Norton, 1984, 『Historical analysis in geography』, Longman.